



* 인쇄업계

“IMF때와 비슷하다” 한 목소리

“4월 들어서부터는 야간에 작업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왔는데도 마찬가지네요. 새해가 온다고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중구 을지로 K사 H사장. “올해 인쇄물량이 30% 정도는 감소했습니다. 내년까지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도산 업체가 속출할 것입니다” 파주시 S사 O사장.

H사장과 O사장의 코멘트가 2003년 인쇄경기를 집약해 주고 있다. 경기조사기관의 발표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인쇄업 평균 가동률은 62%대를 나타냈다. 99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이며, 산업생산지수는 구제금융의 한파 시기 때 보다 더 악화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35%감소라는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인쇄물 수출도 쉽사리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 집계 따르면 인쇄물수출은 지난 9월말 현재 전년대비 2.5% 증가에 그쳐 2001년도 실적에 비한다면 70% 수준에 머물렀다. 제책업계도 인쇄업체의 불황으로 덩달아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작업물량이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5일제 도입과 해외근로자 합법화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인쇄인들의 시름을 깊게 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는 항변 속에 덩핑수주 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는 사실도 아쉬움을 주는 경우다.

이런 가운데서도 미래를 대비하고 희망을 주는 일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 5월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인쇄출판산업을 세계 강국으로 발전시킨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의 자금 지원계획도 발표됐다. 이를 뒷받침 하듯 인쇄역사문화관 조성에 3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인쇄 축제 비용 2천만도 지원됐다. 내년에는 시설자금도 장기 저리 지원될 예정이며 해외도서전시회에 우리나라의 찬란한 인쇄문화와 인쇄기술을 알릴 수 있도록 정부 기금이 지원된다.

또한 올해는 국제교류가 활발했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한중인쇄협회의 협정에 따라 중국인쇄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교류회의를 가진바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상해인쇄전시회 참관과 함께 북한대표단과의 교류도 가졌다. 서울인쇄조합도 동경조합과 교류회의를 열고 양국 인쇄조합간 교류의 폭을 넓혀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6월에 일본에서 열린 도서전에 우리나라 인쇄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인쇄관을 마련해 3개사가 출품한 것도 수출교두보를 확보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한해를 마감할 시점인 11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프린터워드’에서 우리나라의 6개 인쇄사가 금상 등 대부분의 상을 휩쓸어 한국의 인쇄기술이 세계적인임을 입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유창준 국장〉